

신개념 임플란트, 하루에 수술이 가능하다?

기사입력 2012-05-02 16:14 최종수정 2012-09-18 09:12



[이송이 기자] 상실된 치아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치과 치료방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임플란트. 그동안 임플란트 시술은 자연치아와 거의 같은 심미적인 외관과 뛰어난 기능에도 불구하고 출혈과 통증 그리고 가격 때문에 쉽게 치료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플란트의 가격 또한 초기에 비해서 대중화되고 있어 앞으로 임플란트로 상실치아를 치료하는 치과환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시루하려면 치아를 발치하고 1~2개월간을 기다린 다음에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를 심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아를 발치하고 곧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원데이 임플란트(즉시 임플란트)가 큰 관심과 인기를 동시에 모으고 있다. 이 방식은 치료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다는 큰 장점과 아직은 모든 경우에 시술할 수는 없다는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임플란트는 손실된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치아를 발

치하고 1~2개월 정도나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한다는 것인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고 치료에 인내심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원데이 임플란트는 효과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되 치료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원데이 임플란트'는 대부분의 사고나 충치로 인한 치아의 손상으로 치조골의 손상이 적고 뼈이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보통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잇몸뼈가 현저하게 얇아지기 때문에 잇몸뼈가 흡수되기 전에 치아를 발치하면서 당일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것이다.

원데이 임플란트는 그러나 모든 치아손상의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적응을 선별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는 "즉시 임플란트는 외관상 중요한 앞니의 경우나 남아있는 잇몸뼈가 튼튼한 경우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유착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치아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원데이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는 불편함을 최소한도로 줄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시술방법입니다"라고 말한다.

한경닷컴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 ▶ **고지혈의 위험, 몸속 혈관을 막는다**
- ▶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 best 3**
- ▶ **다이어트에 도움 되는 간식은?**
- ▶ **이런 남자랑은 헤어져라?**
- ▶ **직장인 79%, 노후준비 '자식'보다 '돈'**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683888>
